



## 为适应韩国生活迈出的第一步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첫 발을 내딛다

大韩民国唯一的多文化公立学校Hannuri学校迎接新生

대한민국 유일, 다문화공립학교 한누리학교 신입생 맞다

04 2015

### 01 多文化热点新闻 다문화 핫 뉴스

02 市政消息 시정소식  
自治团体第一本中文杂志  
《仁川之窗》创刊  
지자체 최초 중문 잡지  
'인천지창(仁川之窗)' 창간

03 了解仁川 인천바로알기  
从弥邹忽到仁川广域市  
미추홀에서 인천광역시까지

04 多文化焦点 다문화 포커스  
仁川市立博物馆  
인천시립박물관

05 多文化广场 다문화 광장  
延寿文化支援中心  
연수구다문화지원센터

06 多姿多彩的多文化  
다문화 이모저모

07 信息园地 정보마당

08 采访 인터뷰  
在仁川品尝阿拉伯味道  
'아라베스크' 피라스 씨

09 传承传统 闰房茶礼  
전통손길 '규방다례'

10 旅游 여행  
松月洞童话村  
송월동 동화마을

11 本月的演出及展示会  
이달의 공연 및 전시회

12 广告 광고



“我们新生非常高兴能来到仁川Hannuri学校就读，我们庄严宣誓，在校期间专注学业、遵守校规、做好学生的本分。”

春天和新学期的激动一起开始。激动的是仁川唯一的 multicultural 学校还在持续。3月9日在Hannuri公立学校(南洞区论岬洞)的学校讲堂里举行了迎接新生入学仪式。到今年是第三届入学仪式。

当天在Hannuri学校，来自中国、乌兹别克斯坦、越南、巴西、埃及、俄罗斯等12个国家的72名学生成为新成员。入学仪式在新生代表崔韦罗妮卡(18岁，乌兹别克斯坦)的入学宣誓中开始。接着来自12个国家的学生代表用各个国家的语言表达了欢迎问候。教职员们表演了韩语、中文和俄语的合唱，并祝贺新生的入学。

作为学生代表进行宣誓的崔韦罗妮卡同学说：“之前在一般高中就读，韩语也难，生活适应也特别辛苦。”并表示：“Hannuri学校会额外教授韩语真的很好，在学校还能结交很

多朋友，在韩国的生活似乎也变得容易了。”

仁川Hannuri学校朴亨植校长鼓励新生们如是说：“希望新入学的学生们能通过Hannuri学校的学习，更好地适应韩国生活。在跟老师和朋友们的沟通和照顾过程中，培养梦想，带着感恩的心成长成为世界级人才。”

另外，Hannuri学校去年为21个国家的153名学生提供了教育。欲了解详细情况可参考学校网站。

● 咨询：032-442-2012~4

“저희 신입생은 인천한누리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재학 중 학업에 열중하고, 교칙을 잘 지키며 학생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봄은 새 학기의 설렘과 함께 시작된다. 그 설렘은 인천 유일의 다문화 학교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3월 9일 공립 한누리학교(남동구 논현동 소재)가 교내 강당에서 신입생을 맞이하는 입학식을 가졌다. 올해로 3년째 입학식이다.

이날 한누리학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브라질, 이집트, 러시아 등 12개국 관련 학생 72명을 새 식구로 맞이했다. 신입생 대표로 최베로니카(18, 우즈베키스탄) 학생의 선서로 입학식을 시작했다. 이어 12개국 학생 대표가 각 나라의 언어로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교직원들은 한국어와 중국어, 러시아어로 합창을 하며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학생대표로 선서를 한 최베로니카양은 “이전에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도 힘들고,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한누리학교는 한국말도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더 좋다. 친구들도 많이 만났다. 한국생활이 쉬워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인천한누리학교 박형식 교장은 “입학한 학생 모두 한누리학교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한국에 잘 적응하기 바라며, 선생님, 친구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꿈을 키우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한누리 학교는 지난해 21개국 관련 153명 학생들을 교육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문의：032-442-2012~4



# 自治团体第一本中文杂志 《仁川之窗》创刊

지자체 최초 중문 잡지 ‘인천지창(仁川之窗)’ 창간



《仁川之窗》封面 인천지창 표지

仁川市地方自治团体第一本中文版杂志《仁川之窗》创刊。仁川市正在落实10大核心课题之一的加强游客(中国观光客)营销,为了活跃地开展仁川和中国之间的交流和沟通,中文版杂志创刊。作为1年刊发4期的季刊,每期杂志发行1000本,登载仁川地区的风情味道、旅游信息和各种政策等内容。

## 登载地区风情风味, 观光情报等内容 지역의 멋과 맛, 관광정보 등 수록

创刊号上有刘正福市长的创刊词、驻韩中国大使邱国洪和中国天津市长黄兴国的祝词、仁川地区酒店信息、中国姊妹友好城市现状、韩流电视剧《来自星星的你》的仁川观光路线等内容。

特别是仁川华侨一直处于仁川和中国的交流中心,关于华侨的相关企划新闻登载,明化了持续了100多年的华侨历史。

杂志题名的《仁川之窗》是通过中国相关专家、居住在仁川的中国人民推荐选出的。通过名为“窗”的媒介向游客展现仁川的形象,通过窗户带来好的光芒(兆头),这其中寄托着希望更多的中国人(游客)和物(投资)来到仁川的祈望。

《仁川之窗》将配发到中国的姊妹友好城市、中国媒体机构、包括仁川国际机场在内的主要观光介绍处、特级酒店等各处。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국어 판 잡지 ‘인천지창(仁川之窗)’을 창간했다. 인천시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유커(중국관광객) 마케팅 강화를 실천하고 인천과 중국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위해 중국어판 잡지를 창간했다. 1년에 4회 발행하는 계간지로 매호마다 1천부씩 발간되며 인천 지역의 멋과 맛, 관광정보, 각종 시책 등을 수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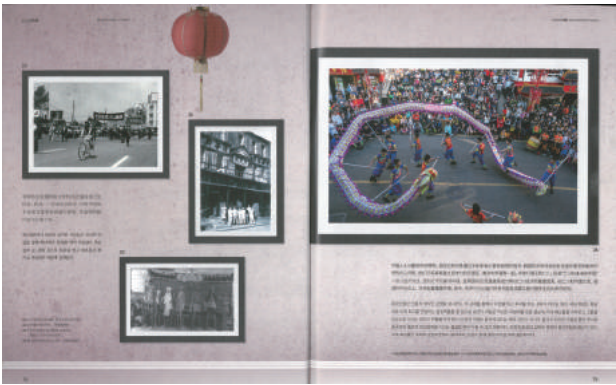
이번 창간호에는 유정복 시장의 창간사, 추귀홍 주한중국대사와 황성귀 중국톈진시장의 축하, 인천지역 호텔정보, 중국 자매우호도시 현황,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인천 관광코스 등을 담았다.

특히 인천과 중국 간 교류의 중심에 있는 인천 화교와 관련한 기획 기사를 게재, 100여 년간 지속된 화교의 역사를 조명했다.

잡지 제호 ‘仁川之窗’은 중국관련 전문가, 인천에 사는 중국인 등에게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천의 이미지를 유커들에게 보여주고, 창문을 통해 좋은 빛(기운)이 들어오듯 인천으로 중국의 人(관광객)과 物(투자)이 많이 들어오길 희망한다는 뜻을 담았다.

‘인천지창’은 중국의 자매우호도시, 중국 언론기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관광안내소, 특급호텔 등에 배부된다.

김민영 편집장  
金珉模 主编 · gem0701@hanmail.net



《仁川之窗》内页 인천지창 내지

## 仁川即时放送 + 인천나우

### 国际机构协议体在市民的参与下变得更为活跃

入驻松岛的包括绿色气候基金(GCF)在内的9个国际机构在市民的积极参与下活动更为丰富。仁川国际机构协议体正在积极推进和开发多种多样的大学生和市民们可以参与的活动项目,如国际机构入住说明会、大学生志愿服务·实习活性化、机构访问项目开发、模拟联合国会议、青少年为对象的讲座等。

### 국제기구협의체 시민참여 활성화

송도에 입주한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한 9개 국제기구들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인천국제기구협의체는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대학생 자원봉사·인턴십, 청소년 대상 특강 등 학생과 시민 참여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 英国企业首次入驻松岛国际都市

英国企业Hellermann Tyton汽车零部件生产·研发设备在松岛国际城市开工。知识产业园区内占地4,160.4㎡,总投资额规模为144亿韩元,地上4层的建筑将于今年10月完工。1933年成立的Hellermann Tyton是在全世界34个国家设有分公司的国际企业。

### 송도국제도시에 영국기업 첫 입주

송도국제도시에서 영국기업 헬러만타이튼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연구시설을 착공했다. 지식산업단지 내 부지 4천160.4㎡에 총 투자비 144억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다. 1933년에 설립된 헬러만타이튼사는 전 세계 34개국에 자회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다.

### 仁川经济厅宣传馆“Open”

仁川经济自由区(IFEZ)宣传馆在松岛国际都市G Tower 33层开业。在宣传馆可以360度眺望西海与松岛国际都市,4个84英寸的大屏幕将IFEZ从大海到陆地变化的历史通过影像展现出了。宣传馆的营业时间为上午9点到下午6点,周六、周日和法定休息日除外。

### 인천경제청 홍보관 ‘오픈’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이 송도국제도시 G타워 33층에 문을 열었다. 홍보관에서는 서해바다와 송도국제도시 전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으며 84인치 멀티비전 4대가 바다에서 땅으로 변해가는 IFEZ의 역사를 모션 그래픽으로 표현한다. 홍보관은 오전 9시~오후 6시, 토·일요일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운영된다.

김민영 편집장  
金珉模 主编 · gem0701@hanmail.net



# 从弥邹忽到仁川广域市

## 미추홀에서 인천광역시까지

仁川的历史从“弥邹忽”开始。弥邹忽指的是公元前18年左右从高句丽南下的沸流建立的新国家，京都建在今天南区的文鹤山。遗憾的是沸流百济没能长久存在下去，仁川地区一直是高句丽、百济、新罗三国你争我夺的角逐场。高丽时期在仁川先后辈出了7位国王的母亲或王妃，直到现在人们闲谈时，还会说这里是诞生好几位“第一夫人”的名门之地。

朝鲜太宗13年(1413)地方制度改编时仁川军队成立，“仁川”这个名字首次出现在了历史上。那一天是10月15日，现在是“仁川市民日”。世祖6年(1460)，升级为仁川都护府，当时的行政区域是东至衿川(现在的始兴)、北至富平、南边与安山等地的军队相连，西至江华一代的海岸，包括永宗岛、德积岛等众多岛屿的辽阔地域。

仁川顺应时代变迁，旧韩末时期济物浦开航。当时只不过是一个小渔村的济物浦在1882年5月基于缔结了《韩美通商条约》等与外国连接的



开港初期的济物浦码头 开港 초기 제물포 포구

通商条约，成了接收新文化的窗口和各国的政治、外交活动的中心舞台。

光复后的1949年，随着地方自治的实施，仁川府升级为仁川市。60年代、70年代成为产业化的中枢城市而面貌焕然一新，并在1981年成为直辖市。

1995年，瓮津郡和江华郡以及金浦剑断面被吸收统合划入仁川，就这样成了现在的“仁川广域市”。

仁川的历史是‘미추홀’에서 시작한다. 미추홀은 기원전 18년경 고구려에서 남하한 비류가 새나라 건설의 큰 뜻을 품고 지금의 남구 문학산에 도읍지를 마련한 곳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비류백제는 오래가지 못했고 인천지역은 오랫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뺏고 빼앗기는 각축장이 된다. 고려시대 때는 7대에 걸쳐 왕의 어머니 혹은 왕비를 배출한 지역이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 명의 ‘퍼스트레이디’를 배출한 명문지역이다.

조선 태종 13년(1413) 지방제도 개편 때 인천군이 되면서 ‘인천(仁川)’이란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했다. 그 날이 바로 10월 15일, 현재의 ‘인천시민의 날’이다. 세조 6년(1460)에 이르러 인천도호부로 격상되었는데 이때의 행정구역은 동쪽으로는 금천(지금의 시흥), 북쪽은 부평, 남쪽은 안산 등의 군들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강화만까지 다다르는 한편 앞바다에 있는 영종도·덕적도 등 많은 섬들을 포함할 만큼 광범위하였다.

인천이 대전환을 맞게 된 것은 구한말 때의 제물포 개항이다. 보잘것 없는 어촌에 불과했던 제물포는 1882년 5월 한미통상조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외국과 잇따라 통상조약을 맺음으로써 신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과 각 국의 정치·외교 활동의 중심무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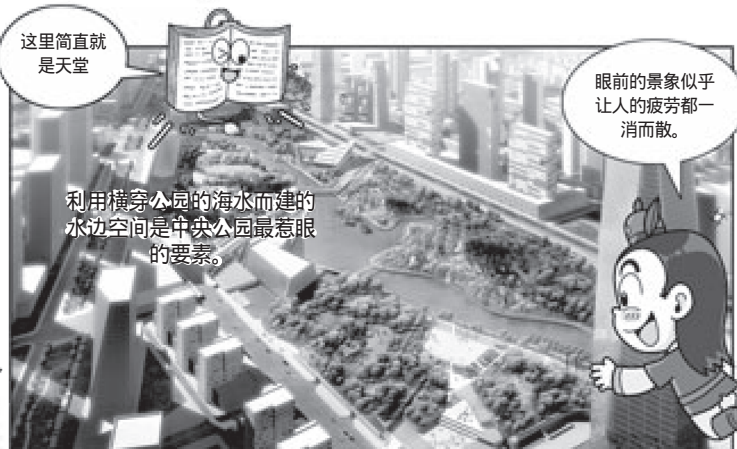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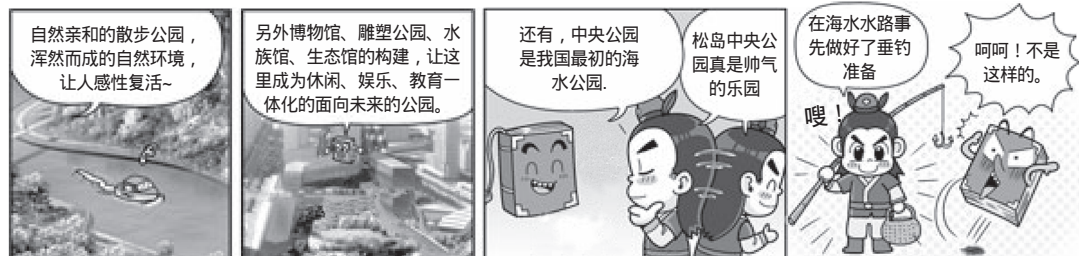
광복 후 1949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인천부(府)는 인천시로 승격되었고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의 중추도시로 그 면모를 쇄신한 끝에 1981년에 직할시가 되었다. 1995년에는 용진군과 강화군 그리고 김포 검단면을 흡수·통합시켜 오늘날과 같은 ‘인천광역시’가 된다.

김민영 편집장  
金珉模 主编 · gem0701@hanmail.net

与沸流王子相遇的松岛中央公园 | 비류왕자와 만나는 송도 중앙공원

## 都市人梦想的天堂 “松岛中央公园”

도시인이 꿈꾸는 파라다이스 '송도 중앙공원'



글·그림 임덕영  
文章 图画·任德勇 · www.flyingtoon.com



# 一个小时的历史纪行

## 한 시간의 역사 기행

仁川市立博物馆 인천시립박물관

了解历史的话就会看到未来。回首走过的路是前进的第一个阶段,了解现在更是最容易的方法。这就是为什么推荐那些离开祖国切身感受着文化差异的移民们去各种博物馆的理由。去博物馆可以更详细地了解仁川,了解韩国。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은 전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다. 현재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고국을 떠나 문화 차이를 실감하고 있는 이 주민에게 다양한 박물관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다. 그곳에 가면 인천을, 한국을 좀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다.

“这里可以容易地舒服地了解到之前只在书里看到的仁川历史,这对孩子们学习历史有帮助!”

芬比奇柴塔(柬埔寨)和次子金竣成一起来到了仁川市立博物馆。虽然来韩国快10年了,但是还很难理解深奥的历史。今天是第一次和孩子一起来市立博物馆。芬比奇柴塔7岁的儿子金竣成也只是随幼儿园组织的团体参观访问过博物馆而已。妈妈和再次来到博物馆要比团体参观时自由很多。参观过江华岛遗址的金竣成按按钮确认遗址和文物。“这是山城? 这是枪!” 金竣成所指的是江华岛原有的“炮”。

博物馆见到的仁川景象对芬比奇柴塔来说也是有趣的。“通过模型介绍仁川港闸门的部分最为印象深刻。这是在故乡很难看到的情景。柬埔寨也有大海,但离我生活的地方很远。”

全部参观完用了不到一个小时。虽然时间不长但是充分可以了解到仁川的历史和过往。芬比奇柴塔说跟孩子一起来博物馆来对了,然后接着说:“为了当旅游翻译曾经学习过,当时学习的仁川历史,今天因为来了这里又想起来了。当时学起来很难,现在亲眼看了遗物和历史故事,更明白了当时的所讲内容。今天大儿子因为要去学校没能来,下次全家一起来了解历史的话估计能更好地学习。”

仁川市立博物馆是1946年正式对外的韩国最早的公立博物馆。在这



里,仁川的历史和文化遗产等都细致地说明展示着,是可以一览仁川历史的地方。按时代区分的“历史1、2室”分别展示着史前时期到高丽时代、朝鲜时代到近代的仁川情景。通过三国时代到朝鲜时代的遗物可以了解到韩国历史最活跃的过往,这些可以在“工艺室”里找到。

“책으로만 보던 인천의 역사를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들 역사 공부에도 좋죠!”

펜피치첸타(캄보디아)씨가 둘째 아들 김준성(7)군과 함께 인천시립박물관을 찾았다. 한국에 온지 거의 10년이 다 됐지만, 깊은 역사까지 이해하긴 쉽지 않다. 아이와 함께 시립박물관을 찾은 것도 오늘이 처음이었다. 김준성 군은 어린이집에서 단체 견학으로 박물관을 다녀간 것이 전부였다. 엄

마와 다시 찾은 박물관은 보다 자유로웠다. 강화도 유적을 살펴보던 김준성 군은 버튼을 눌러 유적지와 유물을 확인했다. “이건 산성? 이진, 충! 김 군이 가리킨 것은 강화도에 있었을 ‘포’였다.

박물관에서 만난 인천의 풍경은 펜피치첸타 씨에게도 흥미로운 모습이다. “인천항의 갑문을 모형으로 설명해준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고향에선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거든요. 캄보디아에도 바다는 있지만 제가 살던 곳에서 멀었어요.”

관람을 마치는 데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짧지만 인천의 역사와 흐름을 보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펜피치첸타 씨는 말을 잇는다. “관광통역안내사를 해보려고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공부했던 인천의 역사가 이곳에 오니 다시 생각나요. 그뻘 어렵기만 했는데 직접 유물과 이야기를 눈으로 확인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요. 오늘은 큰 아이가 학교에 있어

서 같이 못 왔어요. 다음에 가족이 다함께 역사를 알아보면 공부가 될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개관한 대한민국의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 등, 친절한 설명과 함께 전시돼 인천의 역사를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곳이다. 시대별로 나뉜 ‘역사 1·2실’은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조선시대부터 근대기까지 인천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역사의 활발한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은 ‘공예실’에서 따로 만나볼 수 있다.



- 参观时间: 上午9时至下午6时  
(星期一、公休日的次日休息)
- 地址: 延寿区清凉路160-26
- 咨询: 032-440-6750-1
- 运营时间: 오전9시~오후6시  
(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휴무)
- 주소: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 문의: 032-440-6750~1

글·사진 차지는 기자  
文章 照片·车智恩 记者·minsable@hanmail.net

## 2015世界图书之都仁川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世界以书为媒融为一体”  
在仁川开展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  
인천에서 펼쳐진다

仁川市是年联合国教科文组织选定的2015世界图书之都。仁川市保存着高丽八万大藏经出刊、朝鲜外奎章阁(仪轨保管)及鼎足山思考(实录保管)等,是一个跟记录文化关联很深的城市。

仁川市今年以“世界以书为媒融为一体”为主题将举行各种活动。首

先,在4月22日至24日开幕期间,市内各处记录文化讨论会、出刊·印刷·读书体验活动、文化演出等丰富多彩的与书籍相关的活动将开展。还有法兰克福图书展和业务协约签署、国际儿童教育图书展等各种书籍相关的展示会也在企划中。选定10处读书公寓支援,开展流动图书音乐会等,

并开展培养电子出版、正确认识知识产权等促进创作和出版生活化的事业也将在年中进行。除此之外,阿拉航道的阅读之帆(Reading Boat)、八万大藏经移动活动、全国图书馆大会、仁川书籍庆典、读书、写作大赛等接连举行。

联合国教科文组织指定的历届“



# 多文化家庭和普通家庭一起构建“情感”

##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함께하며 ‘정’을 쌓다

人们经常见面的话就会产生感情变得亲近,但多文化家庭和普通家庭经常见面成为莫逆之交的机会并不多。为了能让他们经常见面分享情感,延寿区多文化支援中心(以下简称中心)为他们搭了一个愉悦的桥。

사람은 자주 만나다 보면 친해지고 정이 쌓인다. 하지만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만나 친교를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들이 함께 정을 나누고 꾸준히 만날 수 있도록 연수다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즐거운 명석을 깔았다.

春光明媚的3月最后一个星期六,在延寿区居住的多文化家庭成员16名和普通家庭成员16名,共32名家属来到了位于松岛的朱维斯巧克力体验馆,这是中心筹划的第一次见面。在甜蜜的巧克力之中,多文化家庭和普通家庭带着有些别拗和生疏的表情坐在一起。随着时间的流逝,在互相询问了孩子在哪上学,上几年级后逐渐开始变得熟悉起来。

中心开展的“2015年文化理解同伴体验”活动大幅度地调整增加到10次。为了促进多文化家庭和普通家庭的互相理解,最好的方式就是经常“见面”。他们的见面活动按四个季节度,将分别推出多样的活动。第一季,到松岛的朱维斯巧克力体验馆做巧克力;第二季到希望陶艺体验馆进行陶艺体验、延寿青鹤图书馆观看家族电影、玉兔宇宙中心参观展示馆及体验;第三季仁川市厅广播媒体中心参观录播,源仁斋进行茶道体验和观看电影;第四季文化之家做书签、延寿料理



烘焙糕点学院体验做圣诞节饼干和蛋糕等。

中心计划通过包括4次说明会在内的活动以形成定期的和持续性的会面。倡导热爱延寿区的地区内体验活动也进行8次以上,目前计划在8月份举行2天1夜的同伴营地活动。活动对象按季度接受申请,对象为在延寿区居住的有小学生子女的多文化家庭和普通家庭各8个家庭。

丘恩牟负责人表示:“举行一次性活动的过程中发现有很多遗憾。还

没记得长什么样呢就分开了。通过这次活动互相熟悉,希望可以搭建长期的持续性的交往。”

除此之外,中心还举行了家族活动,如父母子女教育、父亲教育、预备父母教育等,下半年还计划推出科学创意活动、读书活动及邀请童话作家演讲等。

봄별이 완연한 3월 마지막 토요일 연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16명과 일반가정 16명, 총32명의 가족이 송도에 있는 주비스 초콜릿체험장 안으로 들어섰다. 센터가 준비한 첫 번째 만남이다. 달콤한 초콜릿을 사이에 두고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조금은 서먹하고 낯선 표정으로 한자리에 앉았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의 학교를 묻고 학년을 묻는 등 아이들이 매개체가 되어 조금씩 말문을 연다.

센터는 ‘2015년 다문화 이해하기 동반체험’ 행사를 10회기로 대폭 늘려 진행한다. 다문화 가정과 일반가정이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남’이 중요하다. 이들의 만남을 4분기를 나누고, 분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분기에는 송도 주비스 초콜릿체험장에서 초콜릿만들기 체험, 2분기는 희망도에체험관에서 도예체험, 연수청학도서관에서 가족 영화관람, 옥도끼우주센터에서 전시관 관람 및 체험, 3분기는 인천 시청미디어센터에서 방송견학, 원인재에서 다도체험과 영화관람, 4분기는 문화의 집에서 나무책꽂이 만들기, 연수요리제과제빵학원에서 크리스마스 쿠키와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체험 등이다.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 적어도 4번의 정기적이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 연수구의 애착심을 고취시키고자 지역 내 체험 활동도 8회기 이상 진행하고 8월에는 1박2일의 동반 캠프도 예정하고 있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모집 대상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각 8가정이다.

구은모 담당자는 “단발성으로 행사를 진행하다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얼굴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 친숙해져서 지속적인 만남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라고 말했다.

센터는 이 외에도 가족프로그램으로 부모자녀교육, 아버지교육, 예비부모교육 등과 하반기에는 과학 창의프로그램, 독서 활동 및 동화작가초청강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연옥 기자

李蓮玉 记者·yeonog20@naver.com



世界图书之都”有2010年斯洛文尼亚卢布拉、2011阿根廷布宜诺斯艾利斯、2012亚美尼亚埃里温、2013年泰国曼谷、2014年尼日利亚哈科特港。

인천시는 유네스코가 정한 2015년 세계 책의 수도이다. 인천은 고려팔만대장경 판각, 조선외규장각(의궤 보관) 및 정족산 사고(실록

보관) 등이 존재하고 있어 기록 문화와 관련이 깊은 도시이다.

인천시는 올해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란 주제로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개막주간인 4월 22~24일에는 시내 곳곳에서 기록문화 토론회, 판각·인쇄·독서체험행사,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책 관련 행사가 열린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아동교육도서전 등 각종 책 관련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 책 읽는 아파트 10곳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찾아가는 북 콘서트 등을 운영하며 전자출판 육성, 지적재산권 바로알기 등 창작과 출판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도 연중 진행한다. 이밖에 아라뱃길 리딩보트(Reading Boat), 팔만대장경 이운 행사, 전국도서관대회, 인천 북 페스티벌, 독서, 백일

장 등이 잇따라 열린다.

역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수도는 2010년 슬로베니아 루블라나, 201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012 아르메니아 이레스, 2013 태국 방콕, 2014 나이지리아 포트하커트이다.



多姿多彩的多文化 + 다문화 이모저모

多文化 留言板  
다문화 게시판

**富平区多文化家庭支援中心**  
于今年3月举行了2015年结婚移民者指导活动的说明会。结婚移民者指导活动是由已经在韩国定居并熟悉了韩国生活的结婚女性为指导员，由她们引导新移民女性更好地适应韩国生活的活动。来自越南、中国、菲律宾、蒙古等地的移居女性按照1:1组对，以指导者和被指导者的身份开始在韩国的生活。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3월, 2015년 결혼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했다. 결혼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미 정착해 한국생활에 익숙한 결혼이민여성이 멘토로 나서 새 출발하는 이주여성들을 이끌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몽골 등에서 온 이주여성은 1:1로 짝을 지어 멘토와 멘티로서 한국생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东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在这个春天开始了通过读后活动来培养多文化家庭子女梦想的活动。父母和子女一起读书后再一起享受读书的乐趣，正计划开展跟书中的内容和创造活动相关联的体验活动。4月4日至5月2日止，从上午10时开始进行了两个小时，多文化家庭成员20名一起参与活动。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독후활동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꿈을 찾는 프로그램을 올 봄에 시작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은 뒤, 즐거움을 공유하고, 책의 내용과 만들기 활동을 연결한 직업 체험활동 등을 계획 중이다. 4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되며, 20명의 다문화가족과 함께 진행된다.

**中区多文化家庭支援中心**每周六以多文化家庭子女为对象正在开展“2015得意洋洋星期六”的活动。从3月份开始计划举行32次的《历史故事教室》以小学生为对象，希望通过练习册、现场学习、体验活动等方式培养孩子们对韩国历史的兴趣。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주 토요일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2015의 기양양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3월부터 총 32회기로 진행되는 <이야기역사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워크북과 현장학습,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해 흥미롭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延寿区多文化家庭支援中心**在4月份这一个月里将举行《2015智能手机指导学校》。授课以有小学生子女的结婚移民女性为对象，每周四下午1点开始到3点。授课内容为智能手机使用教育和中毒预防教育，通过增进智能手机使用者家庭间沟通的教育，以期智能手机的使用给移民女性带来正面的效应。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5 스마트폰 코칭스쿨>을 4월 한달 동안 진행한다. 수업은 초등생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수업내용은 스마트폰 활용 교육 및 중독 예방 교육,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족 간 의사소통 증진 교육을 통해 이주여성이 스마트폰을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西区多文化家庭支援中心**于今年3月19日举行了“两种语言，快乐双倍”的双语支援活动。当天23名女性结婚移民接受了“按年龄阶段的读书指导法”授课。该活动是由Save The Children支援的父母教育的一部分，为了帮助结婚移民女性自然而然地对子女表达自己的母语和文化、帮助子女们形成更稳定的双重文化认同感、并在形成健康的社会心理发展上做出贡献而企划的，为了达成这个目的，将举行6次父母教育。此外还计划通过事例管理及自主聚会来构建双语环境和培养对自己文化的自豪感。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3월 19일 이중언어 지원사업 '언어 두 개, 기쁨 두 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당일 결혼이민여성 23명이 '아동의 연령에 맞춤 독서지도법' 강의를 수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지원하는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여성이 자

신의 모국어와 문화를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노출해,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이중문화정체성을 형성하고,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에 6차례에 걸친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더불어 사례관리 및 자조 모임으로 이중언어 환경 조성 과 자존감 향상을 함께 도울 예정이다.

**江华郡多文化家庭支援中心**开展了和多文化女性一起《乱打》及《我身体的高温瑜伽》活动。《乱打》是与仁川市民大学合作开展授课的。通过每周四的课程来消除平时积累的压力，同时得到新的乐趣，希望借此给健康的生活带来帮助。《我身体的高温瑜伽》活动是为了生活健康学习瑜伽，到12月为止每周星期一和星期三授课。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여성들과 함께 <두드림 난타>, <내 몸의 힐링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두드림 난타>는 인천시민대학과 연계해 수업을 진행한다.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수업은 평소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취미생활을 얻을 수 있어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 몸의 힐링 요가> 프로그램은 생활 속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요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에 걸쳐 수업이 열린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章 照片·车智恩 记者·minsable@hanmail.net

### 仁川市多文化相关机关联络处

인천시 다문화관련기관 연락처

**仁川市厅多种文化政策课**  
인천시청 다문화정책과 ☎ 032-440-2866  
仁川广域市的南洞区九月洞1135 - 11 park avenue大厦7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5-11 파크에비뉴빌딩 7층

**中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91-1094  
仁川广域市的中区 济物梁路122踏洞信协大厦4楼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22 담동신협빌딩 4층

**桂阳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41-2860~1  
仁川广域市桂阳山路102号路5 社会福利会馆3楼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3층

**南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75-1577  
仁川广域市南区市郡城路189 5楼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89 5층 (학익동)

**南东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467-3912  
仁川广域市的南东区万秀6洞长生路59 -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장승로 59-21

**富平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11- 1800  
仁川广域市的富平区吉州路539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延寿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51-2740  
仁川广域市延寿区清陵大路109탑피온大厦4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109 (탑피온빌딩 4층)

**西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69-1560  
仁川广域市西区景明大路693号路6 (公村洞305 - 13)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 6 (공촌동 305-13)

**东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773-0297  
仁川广域市东区花岛镇路44号路21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44번길 21

**江华郡多文化家庭援助中心**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 933-0980  
仁川广域市江华郡江华邑北门路11 -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를 북문길 11-1

**仁川外国人力支援中心**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 032-431-5757  
仁川广域市的南洞区论岬洞640-3 明真大厦12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6-3 명진프라자 12층

**Incheon Hannuri School**  
인천한누리학교 ☎ 032-442-2102-4  
仁川广域市的南洞区论岬洞640-2 Hannuri学校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0-2 인천한누리학교

# 去医院前先找“仁川劳动者健康中心”

## 병원 보다 먼저 찾는 ‘인천근로자건강센터’

仁川劳动者健康中心在“劳动者的主治医生”的口号下用多种方式负责着劳动者的健康。如果感到与平时不同的异常症状、或觉得有必要做个简单的身体检查时，去医院前不妨先找一下仁川劳动者健康中心吧。所有的治疗都是免费的，从健康咨询到物理治疗都可以。

生病前先帮助自己进行健康管理是最重要的。这里特别用心于劳动者的生活健康，还开展着改变小的生活习惯的教育课程。另外，这里还根据职业的不同开展健康管理活动，以职员和情绪劳动者为对象的健康管理项目也在一同推出。

除此之外，这里还细心地为需要防尘口罩、耳塞等保护用具的劳动者们提供保护用具。针对访问中心比较困难的劳动者们，“上门健康咨询”也在开展中。每月第三星期天的寻找外国劳动者的健康管理活动长期以来一直在进行。仁川劳动者健康中心是在2011年开门营业的。

인천근로자건강센터는 ‘근로자들의 주치의’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진다. 평소와 다른 이상증세를 느끼거나 간단한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 병원보다 먼저 인천근로자건강센터를 찾아 가보자. 모든 진료가 무료인데다 상담 및 물리치료까지 받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병이 진행되기 전,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크다. 작은 생활습관을 고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근로자들의 생활건강을 돌보고 있다. 또한 직업별 맞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무직, 감정노동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보호구가 필요한 작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보호구를 대어 지급하는 등 세심한 배려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 상담’도 진행한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은 외국인 근로자를 찾아가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인천근로자건강센터는 지난 2011년 문을 열었다.



• 运营时间 : 上午9时~下午8时  
• 地址 : 仁川广域市南东区古栈洞636号  
仁川综合商业中心4楼  
• 松岛分所 : 仁川广域市延寿区松岛洞7-50  
松岛科技园Getpearl大厦1楼  
• 咨询 : 1588-6497

• 运营时间 : 오전9시~오후8시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4층  
• 송도분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 1층  
• 문의 : 1588-6497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章 照片·车智恩 记者·minsable@hanmail.net

## 知识就是力量 “生活法律”

알면 힘 ‘생활법률’

在一个社会生活，比了解文化还要重要的东西就是了解“法律”。用法律武装自己，在韩国的生活才能愉快。

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문화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 바로 ‘법’이다. 알면 힘이 되는 법률상식으로 한국생활이 즐겁다.

**1.** 外国人如果想取得大韩民国国籍，就要满足入籍条件（在韩国居住5年以上，有能力维持生计的成年）。但如果是和韩国人结婚的外国人，在韩国居住2年以上即可取得大韩民国的国籍。结婚满3年，以婚姻状态在韩国居住1年以上的情況也可以取得大韩民国国籍。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귀화 요건(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고,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성인)을 만족해야 한다. 단,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할 수 있다.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귀화가 가능하다.

**2.** 2015年最低工资为5,580韩元（时薪）。只要有1名以上职工的所有工厂都适用此条款，违反者处以3年以下有期徒刑或2千万韩元以下的罚款。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시급)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就职1年以上的劳动者离开公司的情况，公司应该支付退休金。退休金为1年平均的月薪额。此条款对临时雇用劳动者亦适用。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월평균 임금이다. 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入境韩国的第一扇门” 出入境管理事务所

## ‘한국 입국의 첫 문’ 출입국관리사무소



出入境管理事务所是办理最初出入境相关业务的地方。签证、滞留许可、永久居住权申请等，成为国际社会市民，那么怎么都得拜访一次出入境管理事务所。国籍和滞留相关业务之外，这里还负责移民、难民、外国政策等业务。

仁川出入境管理事务所为韩语生疏的外国移民者们特别配置了由移民者组成的志愿者团队。志愿者们负责咨询讲解，并作为移民者的初

期适应项目的指导员参与活动。

事务所在出入境事务之外，还开展了作为社会成员自立时所需的教育。0阶段开始到5个阶段，根据不同水平分阶段开展教育，其中“社会综合项目”非常具有代表性。它包括韩国语以及对文化和整体社会了解的教育，整个教育是在严格的管理下进行的，每个阶段的教育只有通过了考试才能进入下一阶段。不仅是针对移民者，对中途入境子女的适应教育、留学生的生活指南等多种适应活动，乃至针对国人的国际婚姻介绍等活动都在运营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경을 넘을 때 관련 업무가 시작되는 곳이다. 비자발급, 체류허가, 영주권 신청 등 국제사회의 시민이라면 한번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게

된다. 국적이나 체류관련업무 외에도 이민, 난민, 외국인정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을 위해 이민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민원인 안내와 함께 이민자들의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멘토로서 활동한다.

사무소에서는 출입국업무 외에도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어 수준별로 교육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민자 뿐 아니라 중도입국자를 위한 적응교육, 유학생을 위한 생활안내 등 다양한 적응프로그램과 내국인을 위한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章 照片·车智恩 记者·minsable@hanmail.net

차지은 기자  
车智恩 记者·minsable@hanmail.net



# 在仁川品尝阿拉伯味道

## 인천에서 아랍의 ‘맛’을 보다

### 正宗阿拉伯餐厅“阿拉维斯克”里的菲拉斯 아랍전문식당 ‘아라베스크’의 피라스 씨



因为最近朴槿惠总统巡访中东地区，人们开始关注“哈拉尔”美食。离我们很遥远的阿拉伯文化以及哈拉尔美食在仁川引发了新的文化风潮。东仁川的阿拉维斯克既是在仁川做生意的阿拉伯商人的休息场所，也是学习阿拉伯文化和语言的学生们的学习空间。那里的厨房长是从约旦来的和蔼可亲的菲拉斯。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으로 ‘할랄’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던 아랍문화와 함께 할랄 음식이 인천에 담겨 새로운 문화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동인천에 있는 아라베스크는 인천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아라비아 상인들의 휴식처이자 아랍 문화와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스터디 공간이다. 그곳에는 요르단에서 온 친절한 주인장 피라스 씨가 있다.

#### 阿拉伯人的绿洲“阿拉维斯克”

伊斯兰教徒的他用带有宗教文化的饮食材料制成的料理放在了餐桌上。仅在几年前，仁川还没有阿拉伯餐厅。帕拉斯皮(46岁)通过美食开始在仁川传播阿拉伯文化。

“人们想去吃外国菜时多是去梨泰院。从仁川到梨泰院距离并不近的……”因此想把那些想吃好吃的阿拉伯风味的人们吸引到仁川来。仁川已不同以往，建有仁川国际机场和仁川松岛国际都市，外国人越来越多。所以当时就想开一间可以放心的好吃的饭店。

“阿拉维斯克”在阿拉伯语中是独特花饰的意思。用阿拉伯饰品装饰而成的阿拉伯餐厅阿拉维斯克是屈指可数的从阿拉伯空运健康食材而来做异国美味的餐厅。对那些为了韩国梦而在异国他乡生活的阿拉伯地区的外国劳动者和居住者来说这里是得到慰藉的爱的小屋。2014仁川参加亚运会时，阿拉伯地区的国家代表团也来这里解决全部的饮食问题，可以说这里是向阿拉伯人提供“家常菜”的难得的餐厅。

#### 아랍인들의 오아시스 ‘아라베스크’

이슬람교인 그는 할랄 음식을 거친 음식 재료로 만든 요리를 식탁에 내놓는다. 하지만 몇 년 전 만해도 인천에는 아랍전문식당이 없었다. 피라스 알코파히(46) 씨는 맛으로 아랍의 문화를 인천에 처음 전파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외국식당 가려면 이태원으로 많이 가요. 인천에서 이태원까지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요... 그래서 맛있는 아랍음식을 먹으러 인천으로 오게 하고 싶었어요. 인천에는 예전과 달리 인천공항도 있고 송도국제도시도 있어 외국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맛있는 식당을 열고 싶었어요.”

‘아라베스크’는 아라비아의 독특한 장식 무늬를 뜻한다. 아라비아 장식과 소품으로 꾸민 아랍 레스토랑 ‘아라베스크’는 아랍에서 날아온 건강한 식재료로 이국적인 맛을 뽐낸다.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아랍권의 외국인 근로자와 거주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지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아랍권 나라의 선수단이 이곳에서 모든 식사를 해결했을 만큼 아랍인들에게 ‘집밥’을 제공하는 소중한 식당이다.

#### 用美食将阿拉伯和韩国相连

菲拉斯通过“阿拉维斯克”给仁川展现的既是美食也是阿拉伯文化。坦言“I love incheon!”的他作为荣誉市民外交官参加各种活动，现在他通过美食架起了一座连接仁川和约旦的桥。

他从热气腾腾的烤箱里拿出的诱人的阿拉伯面包烤“馕”，烤馕飘着麦香、蒜香、香料香等各种香气被放在了桌子上。亲自制作的原味酸奶、色拉、薯条、味香色俱全的烤羊排

以及在火盆中慢慢烤着的烤串放满了一桌子。

再放上用约旦生产的大米制作的“갑사”就一切就绪了。“갑사”是放了鸡肉和调料的饭。撕开馕，沾着用豆做的调料和酸奶汁吃，然后吃鸡和羊肉等多种口味的咖喱跟馕和“갑사”一起交融，形成味道浓厚的风味。包含沙漠风情的阿拉伯美食，通过这家餐厅逐渐开始向仁川市民们传播。这里只来个一两次的客人没有，基本都成了常客。

美食与文化相连，这里吸引了想感受异国语言和文化的客人们的脚步。仁川国际交流财团举行的阿拉伯语讲座参加的学生们也是这里的常客。为了磨练实力、考试以及一睹阿拉伯味道，来此看书的都有。居住在仁川的约旦和叙利亚等阿拉伯圈的人们来仁川出差或旅行途中，常来这里和学生们一起，以阿拉伯饮食为中心用阿拉伯语交谈，彼此之间不分师生。

菲拉斯总是笑着去附近的传统市场购买食品材料和迎接客人，就这样每天都在忙碌地度过着。没有休息

日地经营着餐厅，辛苦又令人疲惫的事情很多，但是让他开心的是分享心得和奉献自己力量的志愿活动。韩语和英语生疏的阿拉伯人的如果遇到紧迫状况的话，他总是丢下餐厅就出门。去医院，或者去官公署交材料，他都同行。

“我想通过阿拉伯的美食向韩国介绍约旦文化。有阿拉伯故事的美食、阿拉伯传统美食等，要制作更为丰富多样的美食来。”亲切的





菲拉斯笑着说。

맛으로 아랍과 한국을 잇다

피라스 씨가 ‘아라베스크’를 통해 인천에 내놓는 것은 음식이자 아랍문화이다. “I love incheon!”을 말하는 그는 시민명에 외교관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 음식으로 인천과 요르단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다. 노릇노릇 오븐에서 먹음직스럽게 구운 ‘

난’이라 불리는 아랍의 빵은 담백하게 또는 마늘향과 허브향이 듬뿍 배인 맛으로 식탁에 오른다. 직접 만든 플레인 요거트와 샐러드, 감자튀김과 맛과 식감이 좋은 양갈비 구이와 화덕에서 살살 구워낸 담백한 꼬치요리가 한 가득 식탁을 채운다. 요르단에서 생산되는 ‘바스마디(쌀)’로 만들어진 ‘갑사’가 식탁을 완성시킨다. ‘갑사’

는 닭고기를 넣고 양념을 한 밥이다. 난을 대충 찢어 콩으로 만든 소스와 요거트를 소스로 찍어 먹고, 닭과 양고기 등 다양한 재료로 맛을 낸 여러 종류의 ‘커리’가 ‘난’과 ‘갑사’와 어우러져 깊은 감칠맛을 낸다. 거친 사막의 모래바람이 담긴 그 아랍의 맛

테스트하며 아랍 맛을 보기 위해 이곳에서 책을 펼치기도 한다. 인천에 거주하는 요르단인과 시리아인 등 아랍권의 현지인들이 출장 중이나 여행 중 이곳에 들러 수강생들과 함께 아랍음식을 중심에 두고 아랍어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스승과 제자가 따로 없는 자리다.

피라스 씨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직접 인근 전통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구입하고 레스토랑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보낸다. 휴일없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보니 힘들고 지치는 일도 많지만 그를 웃게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누고 힘을 보태는 봉사다. 한국어나 영어가 서툰 아랍인들의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그는 언제나 레스토랑을 박차고 나간다. 그들이 병원에 갈 때도 서류를 챙기러 관공서에 갈 때도 시간을 맞춰 동행한다.

“아랍의 음식으로 한국에 요르단의 문화를 알리고 싶어요. 아랍의 이야기가 있는 음식, 아랍 전통 식사 등 더욱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낼 거예요.” 친절한 피라스씨가 웃는다.



和学习阿拉伯语的学生们一起愉快交流阿拉伯文化  
아랍어 강좌 수강생들과 아랍문화에 대해 담소를 나누고 있다.



烤羊肉 양고기 구이

은 이 레스토랑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차츰 퍼지기 시작했다. 한두 번 온 사람들은 여지없이 단골이 된다. 그 맛은 문화로 연결되어 언어와 문화체험을 하려는 이들의 걸음을 이끌고 있다.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 진행하는 아랍어 강좌의 수강생들도 이곳에 자주 들르는 단골들이다. 그들은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章 照片·金珉煥 主編·gem0701@hanmail.net



传承传统 | 闺房茶礼

一盞茶盛載家風 차(茶) 한잔에 가풍을 담다 '귀방다례'

我们国家的传统茶文化中有闺房茶礼。“闺房茶礼”说的是女主人的房间“闺房”和茶文化的“茶礼”。简而言之，即“室内的茶文化”。在夫人们的手中延续的闺房茶礼是朝鲜时代士大夫的夫人们招待客人准备茶品的传统室内文化。通过闺房茶礼体现出主人得体地招呼宾客的美德，还展现出家族的家风。这是夫人们对子女进行针线活、刺绣和料理等教育时必需一起进行的必修课程。闺房是礼仪教育的空间，也是女人们的文化交流的场所。有种说法是，因为我们的祖先喜欢喝茶所以陶瓷器很发达，由此可见祖先有多么地喜欢茶文化。据说以前茶道也是书生们的品德修行。新罗善德女王时代的画廊中边喝茶边修行的资料也有。以此为依据，韩国的茶历史已经有大约1500年了。为了延续茶文化，闺房茶礼保存会指定5月25日为“茶之日”作为纪念日，每年的5月份都会开展多种多样的茶文化演示会。

우리나라 전통 차(茶)문화에는 ‘귀방다례’가 있다. ‘귀방다례’는 안주인의 방인 ‘규방’과 차 문화인 ‘다례’를 일컫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안방의 차 문화’이다. 부녀자들의 손끝에서 이어져 온 규방다례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부녀자들이 손님들에 대한 접대를 위해 차를 준비하여 내놓는 전통적인 안방 문화다. 겸손하게 손님을 배려하는 미덕을 수련하는 안방의 차 문화로 집안의 가풍도 전해진다. 여식에게는 바느질과 자수, 음식 만들기 등의 교육과 더불어 필수 교육과정이었다. 규방은 예절교육의 공간이며 여인네들의 문화 교류의 장이기도 했다. 차를 즐겨 마시다보니 우리의 도자기가 발달했다는 설이 있을 만큼 우리 조상들은 차를 즐겨했다. 옛날 다도(茶道)는 선비들의 덕목이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신라 선덕여왕 때는 화랑도들이 차를 마시며 수양을 했다는 자료도 있다. 그것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차 역사는 1500년쯤 되었다. 차 문화를 이어가는 규방다례보존회는 ‘차(茶)의 날(매년 5월25일)’을 기념하여 매년 5월이면 다양한 차 문화 시연회를 열고 있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章 照片·金珉煥 主編·gem0701@hanmail.net



# 变身童话主人公的幻想

##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환상

松月洞童话村 송월동 동화마을

如果不想成为大人，想去梦幻岛，想去漫游奇境，或者想通过兔子窝成为童话故事中的主人公的话，到松月洞童话村就可以实现。在意想不到的地方张开你心灵深处的想象力。这是每个人都可以来的地方，在童话村尽情发挥你的想象力吧！

어른이 되기 싫다면 네버랜드로, 이상한 나라로 통하려면 토끼굴로, 동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송월동 동화마을로 가면 된다. 환상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마음 깊은 곳의 상상력이 더해질 때 펼쳐지기 마련이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공간, 동화마을에서 당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시라!



需要准备的东西除了上面提到的天马行空的想象力外，如果再带上永远记住幻想成真的照相机的话就更好了。从你踏入这里的那一瞬间，过于“规矩老成”的行为可能会比较碍事要注意一下。为什么只有孩子们喧闹的原因就是这个。如果一直装着老成又规矩的样子，不解放自己的话，你是永远不可能成为童话中的主人公。放开心态，一步一步前行，旅游景点就会逐渐变成童话世界。只有这样你才会和那些童话中的主人公们感受一样。在童话村看不到长辈

们牵手走着的孩子。因为童话中的主人公都不是牵着长辈手的小孩。有些吵闹的充满好奇心的孩子、羞涩地拉着铁皮机器人手的孩子，他们都是这里的主人公。

松月洞是呈现“老市中心”原有面貌的社区。很多60岁以上的老人们没有离开至今生活在那里的地方，现在蜕变成了童话村。中区厅2013年开始决定在那里建童话村。灰色的旧墙加深了原来的颜色，村庄各处种满了鲜花。直愣愣地立在那里的电线杆换成树木映照胡同。

준비물은 자유로운 생각, 필요하다면 이 환상을 영원히 기억해줄 카메라를 동행해도 좋다. 단, 그곳에 발을 디딘 순간 ‘어른다운’ 행동은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유독 아이들이 북적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어른스럽거나, 현실의 끈을 붙잡은 채 마음을 단아버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동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열린 마음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갈수록 ‘관광지’는 동화마을로 변해간다.

어느 동화 속 주인공들이 느꼈던 것처럼, 딱 그렇게. 동화마을에서 어른들 손에 끌려다니는 아이는 볼 수 없다. 동화 속의 인도자는 늘 그렇듯 아이들이다. 조금은 부산스

럽게 호기심을 보이는 아이, 소심하게 양철 로봇의 손을 잡는 도시를 닮은 아이. 모두 그곳의 주인공이다.

송월동은 ‘원도심’하면 떠오르는 모습 그대로의 동네였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떠나지 못해 산다던 그곳이 이제는 엄마 손 잡고 오고 싶어지는 동화마을로 탈바꿈했다. 중구청이 지난 2013년 동화마을을 조성하면서부터다. 회색빛의 낡은 벽은 원색으로 칠해지고, 마을 곳곳에 꽃이 심겼다. 멀뚱하게 서있던 전봇대는 나무로 변해 골목을 비추고 있다.

### 咖啡屋OZ

咖啡屋OZ是位于童话村入口的3层建筑物里的咖啡屋。仁川中区厅举办的“中区 社会性企业 地区特化事业”招募中选定的(株)银汤匙被指定为仁川型预备社会性企业，于4月1日正式开张。不仅创造了新的工作岗位还一并成为童话中主人公们的休息地。

### 카페오즈

카페오즈(OZ)는 동화마을 입구에 위치한 3층 건물 카페다. 인천 중구청에서 개최한 ‘중구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주)실버스푼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지난 4월 1일 문을 열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동화 속 주인공들의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 仁川中区松月洞3街 11-92  
· 인천 중구 송월동3가 11-92



自由公園遠眺的唐人街 자유공원에서 본 차이나타운

### 附近的旅游地

去童话村时，在中区还有很多可以一起观光的旅游景点。从童话村开始，途径自由公园，再到开港路、唐人街，一路徒步观光。在自由公园、唐人街、开港路，仁川的异国风情映入眼帘，这是完全与众不同的经历。再找找隐藏在这一带的美味餐厅，这难道不是半晌家族旅行的妙趣吗？

### 인근 관광지

중구에는 동화마을과 함께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다양하다. 동화마을에서 시작해 자유공원을 거쳐 개항누리길, 차이나타운까지 도보로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자유공원과 차이나타운, 개항장거리의 경계에서 이국적인 인천의 풍경을 한눈에 담아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일대의 숨은 맛집을 찾아 떠나는 것도 반나절 가족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章 照片·车智恩 记者·minsable@hanmail.net



# 音乐脱口秀《恍惚的邻居》

## 음악 토크 〈황홀한 이웃〉

SBS 早间电视剧《恍惚的邻居》中因饰演拥有自由灵魂的徐奉国角色而深受主妇们喜爱的尹熙锡除了音乐剧《希腊》、《海德薇格》外，目前还活跃在多部电影电视剧中，他甚至还发行了迷你专辑发行向歌手领域拓展。音乐脱口秀，既能看到他的精彩现场演唱，还能听到主妇电视剧中的故事。

SBS 아침 드라마 ‘황홀한 이웃’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서봉국 역할로 주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윤희석은 뮤지컬 ‘그리스’, ‘헤드윅’ 외 다수의 영화, 드라마 출연으로 왕성한 활동 중이다. 미니앨범을 발매하여 가수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의 멋진 라이브 노래와 주부들을 위한 드라마 속 뒷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



- 时间：4月16日(周四)上午10点
  - 地点：西方文化会馆大礼堂舞台
  - 门票：全15,000원
  - 咨询：西方文化会馆(032-580-1135)
- 일시：4월16일(목) 오전 10시
  - 장소：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 위
  - 티켓：전석 15,000원
  - 문의：서구문화회관(032-580-1135)

# 白珠英&拉尔夫江东尼双人音乐会

## 백주영 & 랄프 고토니 듀오콘서트

当代最优秀的作曲家潘德列茨基盛赞其为“小提琴女王”的小提琴演奏家白珠英和“吉尔摩艺术家大奖”的获奖者钢琴家拉尔夫江东尼一起登台演出。这是激情四射的年轻演奏家和技巧熟练的钢琴家巨匠联袂奉献的绝佳演奏。

현존하는 최고의 작곡가 펜데레츠키로부터 ‘바이올린의 여제’라고 극찬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길모어 아티스트 어워드’의 수상자인 피아니스트 랄프 고토니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열정적인 연주력을 가진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와 원숙미를 가진 거장 피아니스트가 절정의 연주를 선사할 것이다.

- 时间：4月29日(周三)下午2点
  - 地点：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小演出场
  - 门票：15,000원
  - 咨询：1588 - 2341
- 일시：4월 29일(수) 오후 2시
  - 장소：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전석 15,000원
  - 문의：1588-2341

# Calendar April

<b>10 fri</b> 延禧公司 “游戏U-Hee” • 富平文化舍廊房 • 下午7点30分 • 五千元 ☎ 032-505-5995  연희컴퍼니 유희 '유희노리' •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30분 • 5천원 ☎ 032-505-5995	<b>11 sat</b> 家族音乐剧 《白雪公主和七个矮人》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 小演出场 • 上午11点、下午2点、下午4点 • 3万元 ☎ 1599-9354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전석 3만원 ☎ 1599-9354	<b>14 tue</b> 迎春歌曲和咏叹调之夜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大礼堂 • 下午7点30分 • VIP席3万元、R席2万元、 S席1万元 ☎ 032-429-0248  봄맞이 가곡과 아리아의 밤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30분 •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 032-429-0248	<b>15 wed</b> 有解说的影院音乐会 “Touch音乐会” • 富平文化舍廊房 • 下午7点30分 • 五千元 ☎ 032-507-5996  해설이 있는 시네마 음악회 '터치 클래식' • 부개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 5천원 ☎ 032-507-5996	<b>16 thu</b> 和“徐奉国”尹熙锡在一起的音乐脱口秀《恍惚的邻居》 • 西区文化会馆大礼堂 • 上午10点(brunch)、11点(演出) • 1万元 ☎ 032-580-1163  '서봉국' 윤희석과 함께, 음악 토크 '황홀한 이웃'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오전 10시 (브런치 타임), 11시 (공연) • 1만원 ☎ 032-580-1163	<b>17 fri</b> 第35届残疾人日纪念活动 一颗心庆典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大礼堂 • 上午10点 • 招待 ☎ 032-438-0420  제35회 장애인の日 기념 '한마음 축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전 10시 • 초대 ☎ 032-438-0420	<b>18 sat</b> 动画片《幸福邮递员佩德叔叔》 • 仁川平时学习馆多功能教室 • 下午2点 • 免费 ☎ 032-899-1567  애니메이션 상영 '행복배달부 팻아저씨' •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 오후 2시 • 무료 ☎ 032-899-1567	<b>19 sun</b> 洗掉怪物的我们的妈妈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 小演出场 • 上午11点、下午2点、下午 • 2万5千元 ☎ 1544-3901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전석 2만5천원 ☎ 1544-3901
---	---	--	--	---	--	--	--

<b>22 wed</b> 第4届俄罗斯之夜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大礼堂 • 下午7点30分 • 招待 ☎ 02-583-6295  제4회 러시아의 밤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30분 • 초대 ☎ 02-583-6295	<b>22 wed</b> 复合音乐剧 《淘气万岁, 幼虫的梦想》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 小演出场 • 上午10时30分 • 2万元(团体1万元) ☎ 02-2654-6854  복합뮤지컬 '꾸러기 만세, 애벌레의 꿈'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전 10시30분 • 2만원(단체1만원) ☎ 02-2654-6854	<b>23 thu</b> 斯卡拉歌剧院合唱团 《春季音乐会》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 小演出场 • 下午7点30分 • VIP席5万元、R席4万元、 S席3万元、A席2万元 ☎ 032-888-9911  스칼라 오페라 합창단이 선사하는 "Spring Concert"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7시30분 •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032-888-9911	<b>23 thu</b> Brunch音乐会 《在音乐中相约莎士比亚》 • 富平艺术中心 日光剧场 • 上午11点 • 1万5千元 ☎ 032-500-2000  브런치 콘서트 '음악으로 만나는 셰익스피어'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 오전 11시 • 1만 5천원 ☎ 032-500-2000	<b>25 sat</b> 韩国吉他管弦乐队 第10届吉他演奏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 小演出场 • 下午6点 • 1万元 ☎ 032-833-2080  코리아 기타오케스트라의 제10회 기타이야기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6시 • 전석 1만원 ☎ 032-833-2080	<b>26 sun</b> 超级战队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大礼堂 • 上午11点、下午2点、下午4点30分 • R席5万5千元、S席4万5千元 ☎ 1566-6551, 010-5322-6304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 R석 5만5천원, S석 4만5천원 ☎ 1566-6551, 010-5322-6304	<b>29 wed</b> 气球艺术和魔幻泡沫秀 • 富平文化舍廊房 • 下午7点30分 • 五千元 ☎ 032-507-5996  벌룬아트와 함께하는 맛있는 매직버블쇼 • 부개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 5천원 ☎ 032-507-5996	<b>30 thu</b> 125周年世界劳动节纪念庆祝演出。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 小演出场 • 下午5点30分 • 招待 ☎ 032-437-8501~3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5시30분 • 초대 ☎ 032-437-8501~3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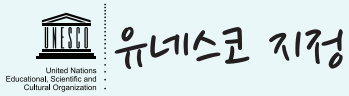
### 本月展示会

- 4月8日至4月20日 / 仁川天主教研究生院、都市-人物展2 / 仁川平生学习馆 树画廊
- 4月8日至4月20日 / 李正根陶艺展 / 仁川平生学习馆 絮画廊
- 4月10日至4月16日 / 第35届仁川水彩画协会定期赛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展示室
- 4月10日至4月16日 / 仁川具象作家会展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 弥邹忽室
- 4月15日至4月26日 / 花样年华 / 仁川学生教育文化会馆画廊
- 4月17日至4月23日 / 生活的思索Ⅱ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小展示室
- 4月22日~4月30日 / 仁川人文画作家会展 / 仁川平生学习馆 树画廊
- 4月22日~4月30日 / 孙墨光、宁静早晨的国家 / 仁川一生学习馆画廊棉花。
- 4月24日至4月30日 / 青蓝田道镇书法展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小展示室
- 4月24日至4月30日 / 仁川周日摄影协会第30届定期会员展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弥邹忽室
- 4月30日至5月31日 / 现代美术 "Wonderland, Neverland" / 富平艺术中心 花世界画廊

### 이달의 전시회

- 4월 8일~4월 20일 / 인천가톨릭대학원, 도사-사람전2 /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 4월 8일~4월 20일 / 이정근 도예전 /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 4월 10일~4월 16일 / 제35회 인천수채화협회 정기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4월 10일~4월 16일 / 인천구상작가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4월 15일~4월 26일 / 화양연화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4월 17일~4월 23일 / 삶의 사색전 Ⅱ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4월 22일~4월 30일 / 인천문인회작가회전 /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 4월 22일~4월 30일 / 손목광, 조용한 아침의 나라 /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 4월 24일~4월 30일 / 청람전도진 서예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4월 24일~4월 30일 / 인천일요사진회 제30회 정기회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4월 30일~5월 31일 / 현대미술 'Wonderland, Neverland' /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 INCHEON 2015

## 세계 책의 수도 인천 世界图书之都仁川

2015. 4. 23. ~ 2016. 4. 22.

### 世界以书为媒融为一体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

开幕式 2015. 4. 23. (星) 松岛国际会展中心

#### 2015 전국도서관 대회

2015. 10. 21 ~ 10. 23, 송도컨벤시아

####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

2015. 10. 30 ~ 11. 29, 인천시립박물관

#### 제1회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

2015. 11. 11 ~ 11. 15, 송도컨벤시아

仁川的梦想, 大韩民的未来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책 읽는 도시  
读书的城市

창작 출판이 편한 도시  
利于创造出版的城市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  
创造人文价值的城市



인천광역시  
仁川廣域市

### 图书之都 开幕周活动 (4月22日-24日)

책의 수도 개막 주간 행사  
(4월 22일~24일)

- '多文化体験教室 "世界是我的朋友"' (弥邹忽图书馆 / 4日~25日)
- '木偶剧演出等 (中央图书馆 / 25日)
- '李哲焕作家读书会 (北区图书馆 / 25日)
- '开幕式 (松岛国际会展中心 / 23日下午5时)
- '图书起跑《小天使们的声音》 (松岛国际会展中心 / 22日下午2点)
- '图书会 (松岛国际会展中心 / 22日下午2点)
- '展示及体验活动 (松岛国际会展中心 / 22日~24日)
- '图书分享会 (松岛国际会展中心 / 24日下午3时)
- '阅读之帆Reading Boat (京仁阿拉航道 / 24日下午3时)

- 다문화체험교실 '세계는 내 친구' (미추홀도서관 / 4일~25일)
- 인형극 공연 등 (중앙도서관 / 25일)
- 이철환 작가 북콘서트 (북구도서관 / 25일)
- 개막식 (송도컨벤시아 / 23일 오후 5시)
- 북스타트 '아기천사들의 목소리' (송도컨벤시아 / 22일 오후 2시)
- 북콘서트 (송도컨벤시아 / 22일 오후 2시)
- 전시 및 체험 행사 (송도컨벤시아 / 22일~24일)
- 책 나눔 콘서트 (송도컨벤시아 / 24일 오후 3시)
- 리딩보트 Reading Boat (경인아라뱃길 / 24일 오후 3시)

